

재미한인수의사회 초청연수 보고서



이 덕 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
Mine1224lee@gmail.com

지난 여름 방학 동안 7월부터 8월까지 약 5주에 걸친 재미한인수의사회 초청 연수에 참가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이란 나라에 발을 디뎠고 이전까지 병원에서 일할 기회가 없던 탓에 긴장도 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모두다 보람되고 값진 경험이었다. 이런 뜻 깊은 기회를 얻게 해준 모교와 선배들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통해 아쉽게 연수에 참가하지 못한 동기들, 또 그 밖의 여러 선후배들과 함께 연수기간 동안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

사랑 받는 동물, 존경 받는 수의사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하고 있다. 사람은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이며 동물은 사람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정도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과 자연 속에서 다양한 동물이 이루는 조화로움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람 역시 그 중에 일부라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으로 자리잡았다.

반려동물 역시 애완동물의 의미를 넘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은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들이다. 이번 연수는 미국의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우선 집집 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문화가 대중적이고 비교적 야생동물을 보기 쉬운 자연환경 덕분에 누구나 쉽게 동물과 접할 수 있었다. 동물병원을 찾을 때도 아이들을 동반하여 방문하는 보호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수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부터 병원이나 동물보호소에서 경험을 갖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지식도 미리 쌓을 수 있고 졸업 후 직업 선택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은 San Diego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Animal shelter)와 대표적인 동물복지 시민단체인

'Humane Society'를 방문한 것이었다.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을 전시하거나 물건처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소나 동물복지단체를 통한 입양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다. 동물보호소에 들어서자 쾌적한 시설과 함께 입양을 희망하는 여러 명의 대기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입양 희망자들은 단순히 입양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입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 등 반려동물이 함께 사는데 적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야만 입양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이 더 이상 과양이나 학대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돋보였다.

또 보호소 바로 옆의 'Humane Society'는 호텔이 부럽지 않을 만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그곳에 머무는 동물들을 보니 넉넉한 공간을 제공받을 뿐 아니라 많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충분한 산책과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시설이 정부의 지원 없이도 민간 기부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복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된 기부자들의 명단을 보며 그들의 멋진 기부문화와 함께, 사람뿐 아니라 동물 역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부러웠다. 이런 크고 작은 민간단체들과 지역 동물병원 사이의 협력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역 수의사는 동물복지단체와 연계하여 구조된 동물의 진료를 돕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는 곧 해당 병원에 대한 홍보로 이어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기보다 도구적인 존재로 여기며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고통을 무시하거나, 또는 동물을 지나치게 인간의 관점에 맞춰서 바라보는 데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을 뒤돌아보아도 그 동안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빠르게 성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인식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의사는 동물 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개선에 있어 선도적인 집단이 되어야 한다. 이는 말 못하는 동물을 보살피고 돕는 수의사란 직업의 소명에 부합할 뿐 아니라 수의사 집단의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고 각종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도 중요한 명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의사들 스스로가 동물복지와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제도의 신설과 개선에 있어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타 관련된 시민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협조와 지지를 얻어내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모가 아이를 가졌다고 쉽사리 반려동물을 유기한다거나 갓 젖을 땀 새끼 동물을 몇 만원에 장난감처럼 사고파는 일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보호자들이 수준 높은 진료를 택하기를

수적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선배들은 좀더 나은 화법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을 고안하거나 그림이나 모형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현지인인 직원들이 보호자 소통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문진 과정을 체계화 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런 노력이 병원의 수익과 보호자의 신뢰에 미치는 중요성은 뚜렷했다. 병원을 찾아오는 보호자마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에도 차이가 있는데다 그들의 경제력, 주거 환경 등은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수의사의 처지에 만족도를 표현하기 어려운 동물이 진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검사와 처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납득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필수적인 일이다. 또 본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다루는 인의와 달리 수의사에게는 환자

와 그 보호자 사이의 유대관계가 진료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수의사의 역할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가 느끼는 고통과 우려를 해소해주고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최후의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기대하긴 어렵다. 수의사가 앞장서서 동물 복지 개선에 힘쓴다면 수의사의 진료가 가지는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번 연수는 동물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수의사가 존경 받는 직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뜻 깊은 경험이었다.

동물과 보호자가 모두 행복한 진료

연수 기간 내내 임상가로서 여러 선배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다양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입지와 주거 환경 또 수의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미국 병원에서 실습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수의사의 처지에 대해 보호자들의 수용도(Acceptance)가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보호자들은 수의사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수의사가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런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데는 수의사와 보호자 사이의 소통이 필

아이들을 만나거나 과외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수의사가 되길 희망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미 많은 아이들에게 수의사는 아픈 동물을 돕는 '착한 직업'이자 선행 받는 직업이다. 이는 물론 수의사라는 직종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수의사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더욱 더 훌륭한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그 분야가 발전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비교에서 서술하듯 아직까지 국내에는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한 예로 군대에서 식중독 등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여 수의장교가 그 역학조사와 방역을 실시하였다는 기사

에 ‘사람이 아프는데 왜 수의장교가 관여를 하느냐’라는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일도 있다. 수의사 개개인이 노력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의사 사회 차원에서 수의사의 다양한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알려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디컬 드라마가 의사라는 직업에 미치는 효과에서 알 수 있듯 TV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가 가지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 때문에 중국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수의사라는 직업이 소개되고 알려지는 것을 기대하지만 이는 파급력이 큰 만큼이나 그 비용과 여건면에서 단기간에 시행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무엇보다 수의사라는 직업이 관계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 먼저 소설이나 짧은 층이 즐겨보는 웹툰과 같은 분야에서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모인다면 머지않아 대중매체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자주 활용될 수 있다. 수의사, 동물병원에 관련된 ‘스토리 텔링 공모전’과 같은 행사는 이런 좋은 이야기를 축적하는데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한국 수의사의 해외 진출

연수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을 접할 기회도 있었다. 임상 분야에서도 로컬 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와 전문 병원 또는 emergency 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학계에 종사하는 선배님과 기업에서 경영과 컨설팅을 맡고 있는 선배님도 뵈 수 있었다. 수의사라는 직업적 배경을 기본으로 여러 분야에 도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에서 수의대를 졸업한 뒤 해외로 진출하는 것 역시 중요한 선택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오랜 이민의 역사와 상대적으로 언어적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많은 점에서 한국인이 수의사로서 진출하기에 훌륭한 나라였다. 특히 미국인들의 동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앞선 반려동물 문화, 수의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매우 부러운 점이었다. 연수기간 동안 만났던 미국인 전문의들 역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들이 다른 학생들과 우리들을 끝까지 동료로서 존중해주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 이 밖에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다양한 취미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여유,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 미국에서의 생활이 가지는 장점은 참으로 많았다. 또 선배들과 일상을 함께하며 선배들로부터 직업정신과 여유 있는 삶의 모습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미국에는 여러 선배들이 훌

륭하게 자리잡고 계시며, 그 동안의 경험과 노력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후배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큰 자산이 되고 있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수의학과 과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 정도로 낙후된 상황을 보여주지만 세계 최고가의 몸값을 가진 강아지가 중국에서 탄생할 만큼 중국의 상류층 사이에서는 반려동물 문화가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달하게 될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수의사들이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었다. 대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적 장벽 등 여러 장점을 바탕으로 이미 몇 개의 병원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상태이며 미국의 대형 동물병원들도 중국 시장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며 한국계 동물병원이나 수의사 역시 중국 시장에서 다양한 기회에 도전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와 시장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개개인이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미국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을 보며 현지 인력과 어떻게 협업 하느냐에 따라 그 어려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지에 직접 병원을 설립하는 방법 외에도 아직까지 체계적인 수의학 교육 시스템이 부족한 중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근접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기술과 숙련된 인력을 보유한 한국의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이 적절한 커리큘럼 개발과 외국인 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중국에서 활동하게 될 인력을 위한 Teaching Hospital 운영 역시 가능할 것이다. 임상뿐 아니라 제약, 식품, 축산업계에 진출해 있는 많은 수의사들에게도 중국의 성장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미국 연수 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지만 미국에서 한인 수의사회라는 이름 아래 돈독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선배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다. 벌써 4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처음 미국에 대해 많은 것들이 생소했던 시기부터 여러 선배들이 노력과 고생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일궈오신 덕분에 지금 후배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한국의 수의학계 역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연수를 준비해 주시고 병원 운영을 비롯하여 임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